

미국자본에 짓밟힌 생존권 싸움

피코 한국지사 주부 노동자들 농성 1년째

90.3.3

‘피코 아줌마’로 통하는 피코 한국지사 노동자 3백여명의 끈질긴 농성이 2일로 1년을 맞았다.

대부분 주부들인 ‘피코 아줌마’들은 지금도 1년째 기계가 멈춘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의 공장 안에서 공장의 정상가동과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눈물겨운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감면 등 각종 특혜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6월 부천본사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한국지사는 하청공장에 완제품조립까지 맡기는 등 기형적인 경영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2월 28일 임금, 퇴직금, 채무, 세금 등 10억여원을 체불한 채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미국으로 철수해

향의 농성을 벌이다 김옥선(37·여)씨가 머리를 다쳐 아직도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열흘동안 미 대사관으로 ‘출근시위’를 벌이다가 모두 경찰서 보호실로 연행되기도 했다.

이같이 끈질긴 싸움을 거치면서 이들에겐 ‘피코 아줌마’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지난해 9월에

노조설립하자 임금등 10억원 떼먹고 달아나

정부 진정·미대사관 시위 결과는 연행·부상

피코 한국지사는 지난 85년 3월 1백여평 규모의 공장을 설치, 유선텔레비전 안테나를 생산해오다 88년에는 제2공장을 확장하는 등 3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연간 3백60여만달러의 순수익을 올리며 급성장했다고 전해진다. ‘미국기업은 대우가 좋다’는 막연한 소문과 기대로 취업한 인근 주부들의 값싼 노임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버렸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된 피코 아줌마들의 끈질기고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지난 1년간 미국 대사관, 미국 상공회의소, 청와대, 노동부, 국회, 각 정당 등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곳은 모두 찾아갔다.

지난해 3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미 상공회의소에 찾아가

는 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재)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상’을 받기도 했다.

농성 1년을 맞은 이들의 바람은 한결같다.

“임금 등을 떼어먹고 달아난 미국기업 앞에 무력하기만 한 한국인의 자존심과 빼앗긴 노동자의 생존권을 속히 되찾고 싶습니다.”

〈이상기 기자〉

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피코사의 노조위원장 유점순씨 등 3명의 한국 노동자들은 24일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시위를 계속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코 본사 앞에서의 시위를 무기한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피코 본사 앞 시위가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5월 19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사흘동안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국 케이블텔레비전 박람회장으로 가서 시위를 계속하면서 피코에서 생산하는 케이블 부속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코 본사와 협상 결렬

19일 재회담 추진

한국피코 노조위원장 유점순(36·여)씨 등 노조대표 3명은 미국 뉴욕에서 12일 오후 1시(현지 시간)부터 피코 본사 버나드 히치코크 회장과 회담을 가졌으나 본사측이 대안제시 없이 노조측에 철수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국피코노조가 14일 밝혔다.

유 위원장이 한국피코노조측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히치코크 회장이 “한국피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동조자들도 모두 범죄자다. 미국이었다면 모두 감옥에 갔을 것이다”는 등 폭언을 해 이를 반박하자 “더할 얘기 없다”며 자리를 떴다.

유 위원장 일행은 미국에 있는 ‘피코지원위’ 등과 함께 부당철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 뒤 오는 19일께 2차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0.4.26

사앞 시위 무기한 계속

국원정 피코노조원 결정

싱턴=정연주 특파원] 뉴욕주 큐스에 있는 피코본사 앞에